

## 광주 유흥주점발 집단 확진...재유행 가능성 현실화

주점 손님·접객원 등 14명 잇단 확진...방문 업소만 18곳  
광주시, 682개 유흥업소 열흘간 폐쇄명령...일부는 고발

광주에서 유흥주점발 집단 전파와 연관이 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재유행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유흥주점과 감염 연관성이 확인된 5명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1~235번 환자로 분류됐으며, 기존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유흥주점발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14명 중 상당수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으로 추정된다. 전날 오후 기준 이들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

된 유흥주점만 18곳에 달한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인 이들은 하루 사이 유흥주점 5~6곳을 돌며接客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활동 반경이 넓어 이동 경로가 비교적 많다.  
때문에 접촉자 수는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손님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유흥주점 출입 기록이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접촉자 수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흥업소발 '3차 감염 재유행'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역 유흥주점 682곳에 대해 전날 오후 7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열흘간 집합 금지·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 18곳을 일

시 폐쇄 조치했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5개 업소는 고발할 방침이다.  
시 방역당국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단란주점·감성주점·노래방·클럽업소 1571곳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법령 상接客원을 둘 수 없음에도 현실적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이들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합동 단속반은 전자출입명부 기록 유지, 실내 밀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에 나선다.  
시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시설을 폐쇄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다수 영업장에서 불법 영업을 확인될 경우 집합 금지·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추가 발동한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오후 5시까지 235명이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지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외부 전경. 이 유흥주점은 손님·接客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 의해 긴급 폐쇄 조치 됐다.

역사회 감염이 급속 확산한 뒤 점차 확진자 추이가 감소, 지난 4일을 기해 방역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4세 사이 지역사 회 감염 추정 확진자가 18명 발생, 감염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인호 기자

## '코로나에 수해까지' 발길 끊긴 해수욕장...상인들 울상



보성군은 코로나19 여파와 수해 등으로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2일 보성군 울포해수욕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의 (장사) 끝났다고 봐야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끊기면서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전남 여수시·영광군·보성군 등

에 따르면 올해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30~50%가량 급감했다.  
여수 만성리·방죽포·모사금 등 8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총 8만10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5만8541명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만성리·가마미·울포 등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 50%까지 급감  
감염재확산 우려에 손님 '뚝'...수해로 숙박 예약 줄줄이 취소

다른 지역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10일 문을 연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에는 1만5000여 명 가량이 다녀갔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는 2만3000여 명이었다.  
이달 3일에서야 개장한 보성 울포해수욕장은 6500여 명이 다녀갔다. 성수기인 8월 첫째주 대목을 노렸지만,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1500명가량 감소했다.  
휴가철 명소로 각광받던 지역 해수욕

장을 찾는 발길이 끊긴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이중고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3시간 당 입장객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파라솔 간격을 조정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운영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예상보다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의 한 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수일간 폭우가 이어지면서 당일 예약취소 건

수가 늘고 있다. 휴가철 성수기가 지나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수 만성리검은모래해수욕장 운영위 관계자는 "최근 수해에 떠밀려 내려온 폐기물 등으로 해변가가 오염된 데다, 코로나19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인적이 끊겼다. 올해 여름철 장사는 더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각 지자체와 해수욕장 상인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체온 측정·방문자 기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고, 3회 이상 소독과 마스크 무료 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 여파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해가 끝나고 무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뒤늦은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보성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울포해수욕장 해변가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다. 이용객의 거리두기 준수도 엄격히 관리하는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막바지 해수욕장 인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